“친구 잘 둬 월드스타 대접…이정재 집념 있는 감독”

이정재 감독 데뷔작 ‘헌트’ 주연 정우성
‘태양은 없다’ 이후 23년만에 호흡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서 최초 공개
남파 간첩 색출 안기부 요원 연기

영화 ‘헌트’ 주연 배우 정우성.

“친구를 잘 둬서 이곳에서 월드 스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다 친구 덕분이에요. 하하.”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 ‘헌트’를 주연한 정우성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75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을 통해 최초 공개된 ‘헌트’는 이정재와 정우성이 영화 ‘태양은 없다’ 이후 23년만에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정우성은 절친한 이정재가 연출하고 연기까지 함께하는 작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마음이었다”며 “둘만 즐기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인데다 이정재와 정우성이 수십 년 만에 조우한, 서로의 개인적인 열망이 담긴 만남이에요. 하지만 그건 영화의 본질적인 가치나 작품성이 아니라 ‘의미’에 불과한 거잖아요. 저희에게는 특별해도 관객에게까지 특별하게 봐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촬영에 임할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한 작품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우성은 이정재를 두고 “당연히 언제든 함께하고 싶은 동료”라며 “정재씨가 ‘헌트’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정도면 우리가 한 바구니에 담겨서 깨지더라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참여를 결정했다”고 했다.

정우성은 ‘헌트’에서 남파 간첩 총책임자 색출에 나선 안기부 에이스 요원 김정도를 연기했다. 이정재가 분한 또 다른 안기부 요원 박평호와는 라이벌 관계로, 서로 다른 신념 때문에 갈등이 폭발한다.

“젊은 날에는 상대 관점을 접어두고 내 신념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헌트’의 평호와 정도는 바라보는 곳이 다르고 서 있는 곳이 달라도 서로 같은 고민을 한다는 걸 결국 깨닫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평호와 정도는 ‘태양은 없다’에서 내내 티격태격하던 도철이와 홍기가 성장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연기를 할 때 ‘감독’ 이정재가 정우성에게 요구한 건 그다지 없었다고 한다. 다만 갈등 관계의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두 사람 모두 카메라 바깥에서도 날을 세운 채로 있었다. “대화를 한 현장보다 하지 않은 현장이 더 많을 정도”였다고 한다.

정우성은 “저를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저를 염두에 두고 각본을 쓰지 않았나 싶다”며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 그냥 믿고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정재 감독은 워낙 꼼꼼한 성격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판단이 맞는지 계속해서 되새겨보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옵션이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집념도 있어요. 그게 바로 감독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독함인데, 잘 이겨내고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칸영화제 상영회에 참석해서야 비로소 완성된 영화를 보게 됐다며 포장지를 뜯지 않은 선물을 열어본 느낌에 더 흐뭇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재씨는 늘 제게 건강한 자극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관계에서 상대를 바라봐준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했든 잘했든 말없이 괜찮다며 바라봐주고 마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좋은 벗입니다. 만약 다른 감독의 작품으로 칸영화제에 왔다면 지금과는 다른 감정이었을 것 같네요.” /연합뉴스

“마을도 사회도 보듬어주는 어른 있어야”

tvN 주말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속정 깊은 해녀 춘희 삼춘역 고두심

“가이(걔) 나름 이유가 이시난(있으니까) 거짓말을 허겠지게”, “느네(너네) 아방신디(아빠한테) 느 여기 있댄(있다고) 말햇쪄”

제주도 방언을 이처럼 맛깔스레 살릴 수 있는 배우가 또 있을까.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고두심(사진)이 tvN 주말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거칠지만, 속정 깊은 해녀 춘희 삼춘으로 분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 카페에서 만난 고두심(71)은 오랜만에 안방극장을 따뜻한 기운으로 채우는 작품이 나와 참 반갑다고 했다.

고두심은 “배우가 장르를 가리면 안 되는데, 나는 지지고 볶는 복수극 이런 게 마음이 닿지 않는다”며 “서로 보듬어 안아주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라고 타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작품이 좋다”고 말했다.

실제 고두심이 출연했던 작품들은 이른바 ‘막장극’이 거의 없다. ‘국민 엄마’라고 불릴 만큼 엄마 역할을 많이 했지만, 서슬퍼런 시어머니 역보다는 늘 퍼주기만 하는 친정엄마 역이 대부분이었다.

고두심이 연기한 춘희 삼춘 역이 딱 그렇다. 제주 어촌마을 사람들 각자가 지닌 사연을 하나씩 들어보는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에서 춘희 삼춘은 옥동(김혜자 분)과 함께 아파하고 분해하는 사람들을 보듬는다.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받는 영옥(한지민)을 앉혀두고 남들에게 말 못 했던 딱한 사정을 가만히 들어주고, 덜컥 아이를 가져 아버지들과 갈등하는 고등학생인 정현(배현성)과 영주(노윤서)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며 기특하다고 말해준다.

영화 ‘인어공주’(2004), ‘빛나는 순간’(2021)에서도 해녀 역을 맡았지만, 중학교 때 물에 빠져 죽을뻔한 경험이 있어 사실은 물을 무서워한다고 했다.

고두심은 “원래 바다만 봐도 해초들이 내 발을 잡아당기는 느낌이어서 무서워 했다”며 “그런데 ‘빛나는 순간’ 때 해녀 삼춘들이 나를 에워싸서 같이 물질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나니 용기가 생겼고, 그 뒤로 극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래 춘희 삼춘 역은 나문희에게 먼저 제안이 갔었다고 했다. 그런데 물질을 하지 않는 날이면 시장에서 나물을 팔고,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다듬거나 밭일에 손을 보태러 나가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춘희 삼춘의 모습을 담아 내려다보니 고두심에게 배역이 넘어갔다고 했다.

“일이 많은 제주도 할머니들은 좀 달라. 쪼그려 앉아서 파를 다듬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하는데, 나이 들면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아직 고두심은 쌩쌩하잖아. 그래서 내가 하게 됐지.(웃음)”

옴니버스 드라마에서 춘희 삼춘의 에피소드는 제일 마지막에 공개된다. 여섯 살 손녀 은기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1972년 MBC 공채 탤런트 5기에 수석 합격해 연기 생활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51년 차다. 데뷔 초기 잠깐의 공백을 제외하면 20년 넘게 출연한 ‘전원일기’(1980~2002)를 비롯해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쉼 없이 오갔고, 연극 무대에도 올랐다. 엄마 역을 주로 맡았지만, 연극 ‘댄스 레슨’(2012)‘에서는 차차차, 스윙 등 멋진 춤을 추는 할머니로 분했고, 지난해 ‘빛나는 순간’에서 아들뻘인 지현우와의 로맨스를 그렸다. /연합뉴스

윤도현, 11년만에 MBC 라디오 복귀
‘4시엔 윤도현입니다’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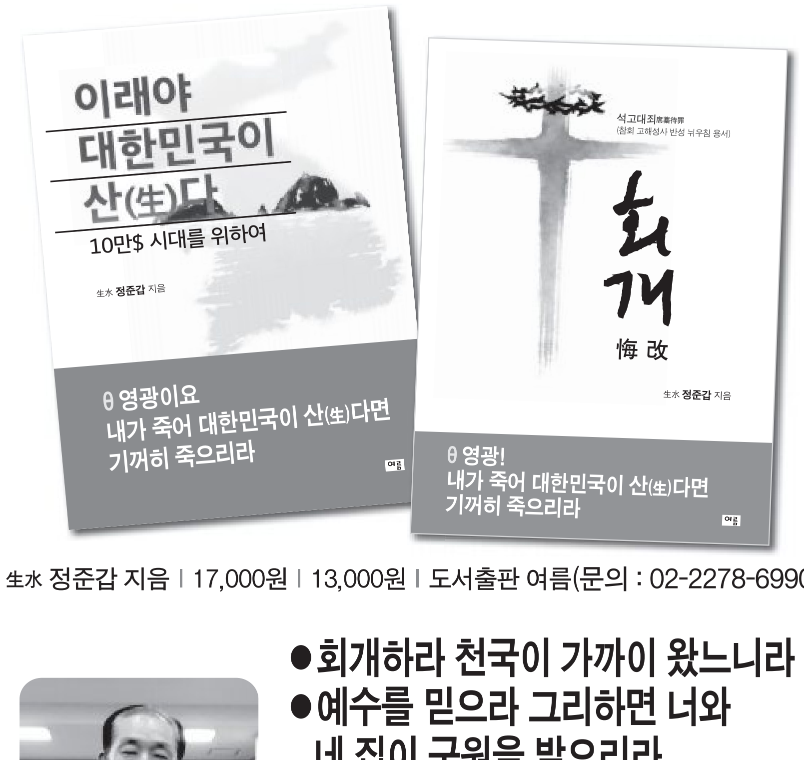
윤도현이 11년 만에 MBC 라디오 DJ로 복귀한다.

MBC 라디오는 오는 30일 새 프로그램 ‘4시엔 윤도현입니다’(사진)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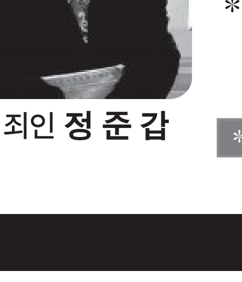
‘4시엔 윤도현입니다’는 최근 건강 문제로 방송에서 하차한 이지혜의 ‘오후의 발견’ 후속으로 신설되는 정통 음악방송으로 매일 오후 4~6시 FM4U(91.9㎒)에서 방송된다.

윤도현은 과거 MBC 라디오 ‘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를 진행한 적 있다.

윤도현은 “좋은 음악들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듣는 행복감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DJ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生水 정준갑 지음 | 17,000원 | 13,000원 | 도서출판 여름(문의 : 02-2278-6990)


대죄인 정 준 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주간(4.11.~4.17.)

＊책 내용을 宗教적으로만 보지말고 精神으로 보아주시고 아파트경비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록한 글

＊저자에게 주어진 도서 수익금은 전액 공익 기부함.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혼슈우는 즈그땅
(쓰시마)

아! 大 한국人이여! 일어나라
아! 大 한국人이여! 깨어(나)라
아! 大 한국人이여! 거듭나라
가슴·마음속에 숨어있는 민족 얼·혼·恨·통분·울분에
함성을 함께 외쳐라·뭉쳐라·밝혀라·세워라·행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간다.
(회개/고해성사/참회/반성/뉘우침)

1인당 국민소득 10만$ 시대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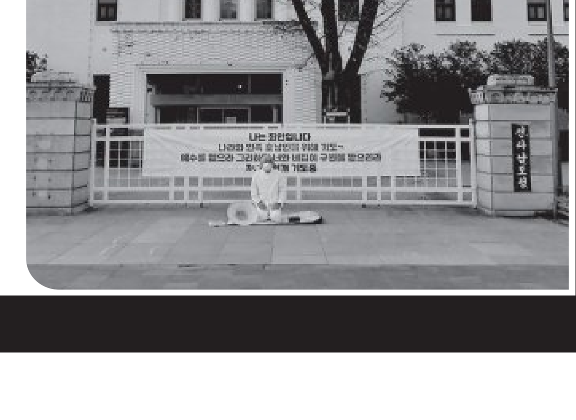
타도하자 공산 독재주의
바로 알자 공산주의 사상
때려잡자 공산당
쳐부수자 마귀/귀신 미혹의 영
일깨우자 사회주의
개선하자 자유민족주의
바로 세우자 자유민주공화국
정립하자 자유민주주의
개벽하자 타락한 세상(세계)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정권이 되기를~

★창조주 여호와 θ께 회개하오며 국민께 고해성사와 참회를 하오니 괴수·금수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이 책은 대한민국을 구제할 민족정신지도자 66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죄인이 국민·광주시민·호남인에게 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전국광역시/도 및 각 시·군·구에 33인 정신지도자 선정.
[개신교 16인, 천주교 8인(성공회 1인 포함), 불교 8인(원불교 1인 포함), 유림1인]

詩 : 恨
무등산아! 무등산아! 너는 왜 그러고 있니!
나는 하염없는 인생이다만,
너까지 하염없는 모습으로 그러고 있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여도,
너는 떳떳한 것을,
왜 그리 처량하니 지켜만 보고 있니!
자존심을 지켜다오. 자긍심을 살려다오.
자존감을 올려다오.
무등산아! 무등산아! 울지 마라. 무등산아!
힘내어라. 무등산아!